

# 지역민과 함께 웃고 울고...광주일보 62년 호남현대사 산증인

호남 대표 정통지인 광주일보가 창사 62주년을 맞았다. 62돌을 맞은 광주일보는 지역민과 함께 현대사를 헤쳐 온 호남 역사 그 자체이다.

광주일보는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화두를 제시하고, 지역 사회의 흐름을 이끌면서 지역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광주일보는 지역 개발과 민주화 투쟁, 문화 발전, 경제위기 극복 등 시대마다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아왔다.

최근 수년 사이 사회의 가장 큰 흐름인 다문화가정 시대에 발맞춰 다문화가정과 그들의 2세, 이주노동자 등을 다룬 시리즈를 4년 여의 장기간 동안 게재해 각 계의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지역 리더 양성과 문화 융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도자들의 리더십 함양을 통해 지역사회의 과제를 심도있게 연구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리더스 아카데미'는 개설 2년을 맞아 더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더욱이 유일무이한 지역 문화예술잡지인 '예향'은 11년 만에 복간했지만 복간 1년 만에 1만부에 달하는 독자층을 확보하며 그 저력을 발휘했다.

지역민의 사랑으로 성장해 온 광주일보는 지역 발전 견인이라는 역사적 책무 아래 100년을 향한 지역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지역민과 함께 한 호남의 역사  
광주일보의 뿌리가 되는 옛 전남일보는 민족 상강의 전성기였던 1952년 2월 10일 첫 호를 발행했다. 또한 다른 뿌리인 옛 전남매일신문은 4·19 직후인 1960년 9월 26일 탄생했다.

두 신문은 1980년 신군부의 강제 언론통제 조치에 따라 '광주일보'라는 제호로 다시 창간됐다. 광주일보가 창간일을 4월 20일로 잡은 것은 전신인 옛 전남일보의 법인설립 등기일(4월 20일)에서 비롯됐다.

1952년 창간호 1면 톱기사는 휴전회담 이승만 독재·유신시대 날카로운 비판 호남예술제·야구대회 등 문화발전 앞장 '다문화 가정' 4년 시리즈 7개 賞 휩쓸어

창간호부터 공격적이었다. 휴전회담 기사를 1면 톱으로 보도하면서 시작된 옛 전남일보는 지방신문으로서의 유례없이 이승만 독재를 통렬히 비판하며, 날카로운 필봉을 내세웠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내세우기 위한 일이라면 항상 선봉에 섰다.

60년 4·19 혁명 당시 교문을 박차고 나선 고교생들의 의거 모습을 상세히 보도했으며 '4·19 광주 희생자 조위금 및 위문금 모금'을 주도했다. 4·19 당시 광주 시위의 발포 책임자 규명을 줄기차게 요구하기도 했다.

언론암흑기인 유신시대에도 정론 직필은 시들지 않았다. 74년 10월 25일 긴급조치 1호의 정국 속에서도 옛 전남일보 기자 41명은 언론자유실천을 결의하고 임무를 다하려 했다. 1980년 5월 당시 옛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은 군화 발에 짓밟힌 광주의 참극을 알리지 못했으며, 당시 진실보도의 의무를 저버린 자책감과 반성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 사회의 비리 척결과 민주화

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2002년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건설업자와 짜고 입찰 프로그램을 조작,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는 보도로 해당 공무원 구속과 입찰 프로그램 전면 교체라는 성과를 내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전남도지사 등 단체장들이 자녀를 특채하고, 관용 여권을 불법 사용한 사실을 고발해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등 언론의 행정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4·19직후 희생자 유가족 돕기운동에 이어 지역개발 캠페인, 광주학생회관 건립 캠페인, 어린이 교통문화운동, 무등산가꾸기 사업, 마을문고 도서보내기 운동, 남도화숙 캠페인, 재소련 한글학숙실업 캠페인, '북녘 동포에 경운기 보내기', 상무대 반환운동, 5·18국립묘지 민주나무 헌수운동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힘써왔다.

또한 호남예술제, 3·1절 전국마라

톤대회 등 수많은 문화·예술·체육행사를 통해 다방면의 지역 인재들을 길러내고 호남인들의 문화 갈증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지역의 지도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아이와 역할을 모을 수 있도록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해 운영중이다.

◇앞선 감각으로 시대의 흐름 주도  
광주일보는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넘어, 다문화 사회에 돌입한 국가적 흐름을 조기에 포착했다. 지난 2007년부터 4년여 동안 다문화 관련 시리즈를 심층 제작했다. 이 기간 동안 국내 취재는 물론 매년 외국인 노동자를 보내 다문화가정의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했다.

광주일보의 다문화 시리즈는 '은누리안 리포트-국제결혼 다문화가정', '고마워요 당신의 팜방을-외국인 노동자의 삶과 꿈', '함께 열어요. 우리의 미래-다문화가정 2세들의 꿈·희망 대안 찾기' 등이다.

첫 해에는 광주·전남지역 다문화 가정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기 위해 관련 연재물을 1년간 진행했으며, 이

어 또다른 우리의 이웃인 외국인 노동자들에 지역사회의 배려와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인이자 지역민이 된 다문화가정 2세들을 진정한 우리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한 캠페인 기획도 게재했다.

이를 통해 광주일보는 제 10·12회 국제엔네스티 언론상,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008년 12월), 제13회 일경언론상, 2011년 한국신문상, 2010년 광주·전남기자협회 대상 등 7개의 대상을 거머쥐었다.

여기에 광주일보는 '문화전쟁'이라는 시대 흐름에 맞춰, 지역 문화의 경

쟁력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을 복간했다. 예향은 복간 수개월 만에 광주·전남지역은 물론 출향 인사와 향우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지역에까지 판매가 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지난 3월11일 광주 라마다호텔 5층 연회장에서 열린 제2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개강식에 참석한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복간 1년

### 알찬 콘텐츠 목적한 담론 문화 소통의 창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이 복간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창사 61주년을 맞아 11년 만에 재창간된 '예향'은 1년 만에 광주·전남 등 호남을 비롯한 경향 각지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문화예술잡지로 발돋움했다.

11년만의 복간이었지만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예향은 21세기 문화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콘텐츠와 수준 높은 문화예술 담론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뒀다.

지금까지 특집기획 기사로 '한옥의 재발견' '무등산' '전라도 사투리' '문화광주 사람이 희망이다' 등 남도의 문화와 숨결이 깃든 특화된 기사를

발굴, 생활 속에서 문화가 향유되고 소통되는 장을 구현했다.

새롭게 선보인 '신남도문화여지도'는 문화와 예술의 고장인 남도의 구석구석을 찾아 그 이면에 흐르는 호남인의 흥과 예인들의 삶, 의로운 역사 등을 다각도로 조망했다.

'예향 초대석'에서는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주인공들의 삶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책과 삶'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사들의 책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이달의 아티스트'에서는 소회광주 사람이 희망이다' 등 남도의 문화와 숨결이 깃든 특화된 기사를

각계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들을 만나 예술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는 10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되면 광주는 명실상부한 문화수도 비전을 실현할 토대를 갖추게 된다. 광주일보와 예향은 앞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킨다는 복안이다.

한편 지난 84년 10월 창간된 예향은 수차례 간행물협회 우수잡지로 선정되는 등 17년 동안 호남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전라도 대표 문화잡지로 불려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Trust Forever!

**새마을금고는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을  
소중히 지켜가겠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와 자물준비금제도로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드립니다.